

오늘은 공현대축일입니다.

공현(公顯)이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드러나다’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일이 몇몇 사람에게만 드러나던 제한적인 공개에서, 그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고 좀 더 넓은 대상에게 그 일의 의미가 알려지게 되다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앙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오늘 동방박사들의 베들레헴 마구간 방문과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본 일,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축일입니다.

신앙에서 이 공현대축일을 기억하는 의미를 먼저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세계에 들어오셨으니, 그분을 맞아들인 우리가 그 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보았을 바로 그 모습을 함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을 그 박사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기억하는 축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보았던 박사들이 출발한 곳이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로마제국에 포함된 이스라엘 지방의 동방에 있었을 페르시아 사람들의 왕국인 파르티아 일수도 있었고, 좀 더 멀리는 지금의 인도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 먼 지역에서부터 베들레헴까

지 인도한 것은 ‘과학문명의 여러 가지 기계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떠 있던 별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센타우르스의 알파’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현재 개발된 우주선의 속도로 계산한다면 가는 데만 4만년이 걸리는 거리이고, 왕복하려면 8만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하니, 동방박사들이 봤을 별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동방에서 출발했다고 하던 동방박사들은 ①하늘에 떠 있던 별에서 어떤 모습을 봤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을까요? 요즘 과학의 입장으로 생각해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②)로 할 수 있는 질문은, 길을 나선 다음에는 그 별이 이 박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인도했기에, 이 박사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었을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문학자들이었으니, 별과 대화할 방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세 번째(③) 질문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박사들은 별이 무엇을 알려주었기에, “우리를 앞서 온 별이 알려준 아기가 바로 이 아기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별했을까요?

과학에서 얻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데는 자기도 그 아기를 찾아 경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그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미 헤로데는 박사들을 통하여 ‘하늘에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헛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드라마에서, 사람이 하는 약속은 깨지기 위한데 있다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헛된 모습이 일관성이 없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실망감을 안겨주기 딱 좋은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긴 신앙의 싹마저 말라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방문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을 예수님을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 씩은 찾아뵙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선물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돈 얘기’를 하나 하는 소리로 들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를 듣기 직전에 내 안에 움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헤로데와 동방박사들이 행동한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든지, 지금 당장

우리를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맺는 삶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남기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고장으로 기쁘게 발걸음을 돌렸을 동방에서 왔다고 하던 박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합당한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고 청해야 할 일입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당소식

● 울뜨레야 모임 안내

신년 맞이 울뜨레야 모임이 오늘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문의) 김현태 간사

● 바뇌 성모의 기도회 안내

1월 7일 오후 7:30 김직현(요한)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미사에 필요한 제구, 제의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봉헌 의사가 있으신 분은 주임신부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의 2벌, 약식 제의 1벌, 제대보, 성작과 성합도금, 촛대, 제대용 십자가, 행렬용 십자가, 향로 걸이, 14처, 미사독서책, 기타(성체현시용 대방석, 마이크, 앰프, 독서대, 감실받침대) 등

● 평일미사와 성시간

1월 14일(수)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성시간은 2월 부터 매월 첫 목요일에 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유근산 형제님 가족이 11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충만한 성가정을 이루세요.

● 각 단체장 또는 사목위원들은 공지하실 사항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전화) 519 883 8488

이메일) tj1234@catholic.or.kr

● 다음 주는 (11일) 교무금을 내는 날입니다. 십일조는 아니더라도 정성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개인의 형편을 고려해서 삼십일조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 성당 교우주소록 협조안내

구역장님들은 영어이름, 영명축일, 주소,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매일 미사 책 신청

2009년 매일 미사 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 : 박재영(바오로) 형제님

● 미사지향 신청

본당에서 마련한 봉투에 작성하셔서 전례분과장을 통해 미사 전 제대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

1월 25(주일) 설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벗들을 위해 가장 값진 미사를 선물로 드리고, 그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사 중 연도가 있겠습니다. 위령미사 신청은 전례분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 공소 사목위원과 단체장 22명의 면담이 끝났습니다. 본당 운영에 관해 제언하실 분은 스케줄 조정을 위해 사무봉사자(519 894 3533)를 통해 면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담은 1월 5일(월)부터 1월 10일(토)까지만 받겠습니다. 1월 11일부터는 본당 운영에 관한 개인적인 제안은 받지 않고 신앙생활에 관한 면담만 있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헌금 내역

감사 헌금 : \$755.00

헌금 : \$ 55.00

Total : \$ 810.00



KW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muse@korea.com

사무봉사자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화(구역방문), 수 오전 10시,
목 오후 5시, 금 오후 7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상시 / 10회 종합교리

통신교리이수자 4회 특별교육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02

2009.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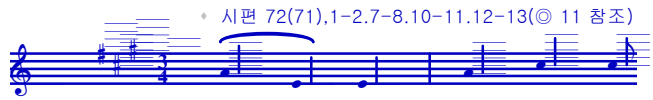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전례

해설 김용하

차주 해설 노재현

화답 송



• (후렴) 주 - 님 세 상 모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 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알렐루야

성가

입당 (487) 동방의 세박사

봉헌 (221) 받아주소서

성체 (182) 신묘하온 이 영적

퇴장 (407) 하나이신 천주

독서

1월 4일 한택중

한재희

1월 11일 박재영

박경미

1월 18일 김직현

김인자

봉헌

1월 4일 김근효

김순희

1월 11일 한택중

한재희

1월 18일 박재영

박경미

복사

1월 4일 최예슬

구하람

1월 11일 김근영

류지홍

1월 18일 박규환

구한힘

친교

1월 4일 영광팀

1월 11일 신비팀

1월 18일 장미팀

1월 25일 백합팀